



▣ 교보생명, 자율준수 실천의지 강조

교보생명은 2007년 11월 19일 임직원의 공정거래법규 역량강화와 전사적인 공정경쟁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임직원 및 보험설계사에게 「공정경쟁 자율실천 선포 1주년 특별 CEO 메시지」를 발표했다. 신창재 회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규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형식적인제도 도입이 아니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 실천해야할 경영 방식”이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기업 가치와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공정경쟁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원들을 상대로 팀원이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단위별 공정거래법규지식 측정대회」를 마련,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재미있게 습득하며 전사적인 공정거래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에 일조했다.

▣ 하이닉스, 공정거래관련 특강 실시

지난 12월 13일 하이닉스의 경영전략실, 대외협력실, 영업본부 및 전략관리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반독점법) 특강이 열렸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조성국 교수의 '부당공동행위의 이해와 예방'이란 주제로 영업 및 회사전략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사례로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개별 기업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하이닉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 세이디에스,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 개최

(주) 세이디에스 백화점은 경쟁법 위반 사전예방과 투명 경영활동을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7년 11월 6일 도입, 손기근 대표이사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선포식”을 개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백화점 세이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광영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주관부서인 영업전략팀에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사무편람 제작·배포, 임직원 교육 및 법규준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손기근 대표이사는 업계의 불공정한 영업행위의 만연으로 인하여 경쟁당국으로부터의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었던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경쟁을 통한 이미지 제고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